

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2023년 6월 후원미사는 19일에 봉헌합니다. 이주사목위원회 사제, 수도자들은 후원회원분들의 기정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새로운 후원 가족을 환영합니다!

임영철 보니파시오님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 / 02.924.9970

2023년 3~4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26,757,713		
구 분	2023년 3월		2023년 4월	
자 동 이 체	680명	9,723,900	702명	10,404,133
지 로	38명	1,007,310	92명	1,014,480
CMS이체	185명	2,308,680	184명	2,299,210
합 계	903명	13,039,890	978명	13,717,823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 어린이집	1,070,85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6,0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가정폭력 이주여성 시설	2,05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행사비 등
	마고네 지역아동센터	6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 집	4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4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800,000	제전비
	인도네시아공동체	500,000	제전비
	상호문화센터	6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민족공동체	1,560,460	부활 맞이 미등록 근로자 생계 지원
소 계	13,981,310		
시설비	노동사목회관	6,000,000	시설유지비, 수도광열비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6,776,403	운영비 지출 및 예치

지출 총액	26,757,713
-------	------------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좋은이웃

2023. 05 / 제69호

펴낸날 2023. 05. 15.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유상혁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facebook.com/seoulmigrant instagram.com/seoulmigrant

신부님 글

Love is an Action Word 사랑은 행동하는 단어

저는 1998년부터 2009년까지 태국에서 소임을 맡아 활동했습니다. 저는 지역 본당을 돌보는 것 외에, 에이즈(후천면역결핍증후군)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돌보는 단체의 일원으로서 활동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에이즈 환자들을 돌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도 아픈 가족을 자신의 식구로 받아들이고 돌봐 주기를 희망하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에이즈 예방 교육 프로그램 초반에는 의사와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우리 단체 활동을 도와주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학교를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예방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의사와 전문가들의 강의를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에이즈 감염 환자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초대된 세 명의 환자는 한 가정의 가장, 주부, 그리고 9살된 소녀였습니다. 그들은 학교 아이들 앞에서 자신들의 에이즈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매우 조용해졌고, 특히 9살 소녀가 간단하게나마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때는 더욱 집중하였습니다. 소녀는 "저는 에이즈에 걸렸어요. 분명히 몇 달 안에 죽을 거예요. 사실 저는 상관 없어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저의 아빠와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이를 보던 다른 아이들도 소녀를 따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이 소녀에게 다가가 포옹하며 같이 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주위의 아이들의 따뜻한 포옹을 받자마자, 더욱 평평 울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희는 어린 소녀에게 왜 청중의 포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울었는지 물었습니다. 소녀는 "누군가에게 포옹을 받은 것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정말 처음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저희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세상은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이따금씩 입으로만 내뱉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누군가의 관심, 이해 그리고 가벼운 포옹 또는 토닥임일지 모릅니다.

프랑스 작가이자 정치가인 빅토르 위고는 "사랑 없이 줄 수 있어도, 주지 않고는 결코 사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모든 것이 사랑에 기반을 두도록 기도합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필리핀공동체 레오닐로 신부

공동체 소식

부활대축일 소식*

온 세상에 기쁜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이주사목위원회의 공동체들도 성삼일을 거룩하게 보내고 기쁜 부활대축일을 함께 기념하며 보냈습니다. 낯선 땅에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주민 모두에게 주님의 수난과 부활의 신비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미공동체〉

〈베트남공동체〉

〈필리핀공동체〉

이주노동자상담실 소식*



(재)바보의 나눔에서 지원을 받아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간 소그룹 상담 프로그램인 <이주배경 청소년 예술 통합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다문화 배경을 지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 1회, 2회 가씩(총 3시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외모의 차이, 문화 충돌, 부모의 국적 등으로 인해 또래 집단에 잘 속하지 못하거나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어느 청소년기 학생들처럼 정체성 혼란을 겪거나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청소년들의 다문화라는 배경적 특수성과 발달적 연령을 고려하여 춤, 그림, 연극, 악기, 노래 등을 이용하여 이들의 정체성, 사회성, 소통, 공감력 향상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 존중감 지수가 상승하였고 참가자들이 자신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장점, 단점 등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게 되었고, 자신을 바라보며 자각하는 태도가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꿈)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며 새로운 기대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이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재사망노동자를 위한 추모의 날 소식*

4월 28일은 노동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UN에서 정한 "세계 노동 안전과 건강을 위한 날"입니다. '노동자 추모일'이라고도 불리는데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노동자를 추모하고, 일하다 죽는 일이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모두의 관심과 실천을 독려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고자 4월 27일 목요일 10시에 노동사목위원회와 함께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올해 초 포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태국인 노동자의 주검을 농장주가 인근 야산에 유기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열악한 숙소 환경 상태로 충격이었지만 10년 가까이 함께 일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든 일터에서 인종차별이 일어나지 않고 모든 노동자들이 인권보호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트남공동체 소식*

이주사목위원회 산하 국가공동체인 베트남 공동체가 지난 4월 23일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의 주례로 기념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2003년 4월 13일 살레시오 수도회 소속 팜 탄 빈 요셉 신부가 베트남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서울 베트남 공동체가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노동자 요셉을 주보성인으로 하고, 담당사제, 사목위원회, 각 지역공동체로 이루어지는 정식 공동체인 서울 베트남공동체가 발전하기 시작되었습니다. 별도의 공소에서 미사를 드렸으나 그 장소가 옥탑이고 오래되고 주일미사를 드리는 베트남 신자들의 수에 비해 장소가 좁고 위험하여 2020년 6월 21일 노동사목회관 3층으로 이전하였지만 현재 약 500명의 많은 신자들이 주일미사에 참석하여 여전히 공간이 턱 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타국 생활의 어려움이 많지만 미사가 주는 은총과 위로를 받기 위해 베트남 공동체 미사에 많은 신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건강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하느님의 축복이 베트남 공동체 신자들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약 7년간 베트남 공동체를 담당한 원덕호(Nguyen Duc Hao, 하오) 신부님께서 타교구 이주사목위원회로 소임받아 이동하십니다. 타국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신자들의 목소리에 언제나 귀 기울이고 위로해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리며 영육간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설립20주년 기념미사〉

〈설립20주년 기념미사〉

〈원덕호 신부님〉

소식지 발송 변경 공지사항*

후원자분들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을 보다 잘 선용하기 위해(소식지 발행 비용과 우편비 절감),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으로 소식지 받는 방식을 더 확대하려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1번) 소식지 받지 않기: 사무국으로 전화 주시면 소식지 발송을 중지해 드리며 소식지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번) E-mail로 소식지 받기: migrant@catholic.or.kr로 성함, 전화번호와 함께 메일 주시면 수신된 후원자님의 E-mail로 소식지를 발송해드립니다.
- 3번) 기존의 방식대로 유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안 주셔도 됩니다.

달라지는 상황에 후원회원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분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사무국으로(02-924-9970/1)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후원금내역 공지 변경 사항*

7월 소식지 발행분부터 4페이지에 있는 후원금 사용 내역은 소식지에서 빠지고 이주사목위원회 홈페이지에 (www.seoulmigrant.net) 별도로 매월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